

# 편치라인

## 단위장소당 평균의 절대량을 줄이자

평소에 우리가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습관화된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혹은無力感を 통감하면서 참고 견디어낸 양계업계 전반에 걸친 不合理과 非能率과 無知, 行政上の 모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비록 쓰라린 상처를 헤집는 아픔이 있더라도 맹수가 자신의 상처를 혀로 핥아 치료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어 날카롭게 해부하고 처방을 내리며, 때로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적에 대하여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명확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더욱 발전되고 건전한 양계풍토를 이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의도에서 이 칼럼을 신설한다. 또한 「편치라인」이란 급소를 짚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뜻의 문귀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신 정 일  
(유일농원영업부장  
本誌 편집위원)

우리는 타성에 젖어있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해를 넘겼다. 어떻게 잘 되어 가겠지! 구멍이 담 넘어가는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게슴츠레 눈을 감고 있다. 양계인 우리는 눈을 뜨고 현실을 살펴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다가 질병에 얻어 맞고서는 눈을 바짝 뜨고 연못속의 개구리들처럼 조잘된다. 약품이 어퍼하다느니, 사료가 잘못되었다느니, 병아리가 약하다느니, 그리고는 또 눈을 감는다. 스스로 꿈속으로 빠져든다. 별로 달콤하지도 못한 꿈속으로.

### ■ 계사의 오염수명

뉴케슬의 갈매리지역 강타는 닭고기 kg당 800원대의 희소식과 함께 76년의 초반을 화려하게(?) 장식한 양계업계의 복병이었다. 갈

매리지역 뿐만 아니라 소사지역, 일산지역, 혹은 기타지역 등에서 이뉴케슬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부분적인 피해를 본 대개의 양계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든다. 놀라운 폐사율을 보이는 뉴케슬 이외에 산란율을 저하시키는 세균, 사료효율을 나쁘게 하는 질병, 서서히 폐사를 몰고 오는 은근짜 복병들, 이러한 각종 병균들도 양계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그러나 우리 양계인들은 아는듯 모르는듯 이러한 사실을 등한시 한다.

우리의 계사는 극히 오염된 상태이다. 발전된 서구에 있어서 계사의 오염수명은 대개 20년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깨끗한 관리와 방역위생을 철저히 하더라도 20년을 사용하면 계사는 완전히 오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에서의 일이다. 육우사와 육성사 혹은 성계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밀집된 집단 촌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계사는 과연 오염수명이 몇년이나 될까? 양계경력에 오래되고 비교적 자주 옮겨서 계사

\*\*\*\*\*

# 편치라인

\*\*\*\*\*

를 신축 사용하여 본 육용업자의 말에 의하면 “몇달은 잘 크다.” 느니 혹은 “1년은 잘 크다”는 등의 말을 한다. 새로운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한 양계장이라 하더라도 몇년되지 않아서 평균으로 완전히 오염되어버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 ■ 오염계사의 폐해

부언할 필요도 없이 오염계사는 질병의 원천이 된다. 해마다 최초로 뉴케슬이 발생하는 곳은 대개 ‘어디 어디서 부터, 라고 인식되어 있다. 가장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고 방역위생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곳에서 부터 뉴케슬은 발생한다. 우리는 이번의 뉴케슬 피해에 대해서도 백신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과연 백신에만 그 잘못이 있을까? 왜 오염지역에서만 뉴케슬이 발생했는가? 우리는 뉴케슬뿐 아니라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약을 투여하고 그 효과가 없다해서 약품제조회사에 따지고 든다. 부로일러에 있어서 사료효율이 나쁘다든가 성장속도가 떨어질 때 우리는 사료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 또한 육추율이 나쁠때 병아리부터 탓한다. 물론 이러한 제 요인이 우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다. 뉴케슬 백신종균의 병독이 너무 강했을 때 이를 접종시킨 계군에 뉴케슬을 병발시킬 수 있다. 오염종란을 사용하고 불합리한 검정을 거친 백신속에 마이코프라스마균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백신을 접종시킨 계군이 CRD에 감염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 약품의 역가나 사료의 품질을 의심할 수도 있으며 잘못된 종계관리와 부화관리 하에서 생산된 허약추가 우리의 육추율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인 이전에 오염계사와 소홀한 방역이 생산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계사를 짓고 양계를 할 때 얼마 기간동안은 부로일러의 성장속도나 사료효율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갈매리의 양계업자들이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여기서 양계를 못하겠다면서 양계장부지를 구하러 다닌 것도 하나의 실예이다. 약품이나 사료를 나무래봤자 피해는 역시 우리의 것이다. 근본적으로 오염계사와 방역소홀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 예상되는 약품파동

방역의 가장 주된 무기로는 역시 약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병과 약이라는 것은 바늘과 실이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양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도 약품은 거의 절대적이다. 한마리의 닭에게서 한개의 알을 더 생산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용산 영양제를 사용한다. 부로일러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비타민제를 투여한다. 약품에 대한 양계인의 인식도가 수년동안에 많이 변했다. 5~10년전만 해도 양계인들은 약품회사의 영업부 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서 약품을 사용했다. 허나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양계장마다 수용산 영양제의 병이나 깡통이 굴러 다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약품이 귀하게(?) 될 것도 같다. 약품원료수입에 배정되는 외화를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다는 얘기이다.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줄이면 원료가 적게 들어오고 약품생산량이 적어진다는 결론이다. 결국 약품값이 오르게 될 것이고 약품회사의 판매경쟁이 없어지고 양계장의 구입애걸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부로일러 병아리시장판도와 비슷한 현상이 약품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사람이 평소 보약을 먹듯이 계군에

# 편치라인

투여해 오던 약품이 비싸지고 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을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 ■ 세척과 차단과 소독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교과서대로의 양계시설을 가지기가 힘들며 현재의 여건을 당장 바꿀 수도 없다. 우리는 오염계사의 현실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뉴캐슬이 발생했을 때 병아리나 백신을 맞하기 전에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자. 우리는 우리자신을 돌아보기가 두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염된 상황하에 처해 있고 너무도 방역에 소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현실의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자세히 관찰하면 이러한 저효율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예상되는 약품파동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약품을 적게 쓰면 된다. 우리는 이제 너무 치우쳐진 소비성방역(영양제)을 지양하고 생산성방역(소독과 세척등)을 택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손쉽고 가까운 방역방법에 너무 소홀했다. 알고 있기는 했지만 실시하지는 못했다. 계사안의 소독판을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과연 우리는 1년 365일 계속 신선한 소독판으로 유지했었던가? 계사기구를 세척해야한다는 것을 알면서 계사가 비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깨끗이 닦고 소독했는가? 우리는 욕심이 많아 밀사했고 무리했었다. 세척과 차단과 소독은 방역위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0마리의 세균속에서 자란 병아리와 일만마리의 병균속에서 자란 닭은 그 생산효율이 월등하게 다르다. 세척과 차단과 소독은 계사내의 십만마리의 세균을 일만마리 혹은 일천마리의 숫자로 감소시키고 이로서 수용산 영양제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3회의 ND백신접종을 2회로 줄이면서 뉴캐슬 발병

## ■ 방역대책

### 가. 소 독

매일 1회이상 계사내부를 분무소독하라. 물론 소독약품은 음주소독가능한 계면활성제등을 택하여야 한다. 천정, 벽, 바닥, 공간, 계체, 케이지, 물통등을 철저히 분무한다. 이는 계사내부 단위장소당 세균수를 억제 감소시킨다.

이미 흡수된 계체내부의 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음주소독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계사의부의 분무소독은 울소제 소독약을 사용한다.

소독판을 반드시 사용한다. (현대양계 76년 2월, 3호월호 참조)

### 나. 세 척

유기물이 잔뜩 낀 케이지를 아무리 소독해도 효과가 없다. 농장내의 각종 기구에 대한 세척은 철저히 해야 한다.

### 다. 차 단

농장의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원뿐 아니라 농장내에서 각 계사안에 서로 교차되는 작업조, 기구등에 대한 병균차단도 매우 중요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잘 잊어버린다. 청소와 정리정돈과 매일 계사내분무소독과 끊이지 않는 소독조동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힘들다. 영양제는 수입해야 하지만 소독약품은 국내생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꾸준히 양계의 방역 자세를 지켜 나가자.

수입약품, 수입사료, 수입병아리를 이용하는 우리의 현실하에서 단위장소당 병균의 절대량을 감소시키므로 생산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수익성뿐 아니라 바로 의화를 절약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